

국토 누비며 '역사숨결' 잇기 40년

산문박의 示

문화재위원 김정기 박사

많은 오후의 경복궁은 호수에 한가로운이 떠 있는 백조와 같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서면 수많은 영육의 역사가 상공성글 다가선다. 그 역사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에서 남은 소중한 기억과 자취를 찾는 사람들. 역사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른다. 철학자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씩씩하고 고뇌에 빠진다. 시인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 추녀 끝에 매달린 해진 지푸라기 속에서도 눈물을 본다. 문화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역사를 잊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잇기 위해 기억 없는 긴 여행을 떠난다.

사찰 가람배치 연구

겉에 그윽한 얼굴, 무엇에 골몰해 있는지 기자가 들어서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마냥 책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김정기 박사(67세). 국립박물관 학예관을 시작으로 문화재연구원, 연구

중 문화재 및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해 부여 금강사지, 황룡사, 미륵사지, 천마총 발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한 문화재·유적발굴 회수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김박사의 대답이 그가 얼마나 우리 문화재 발굴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감은사지 서탑 해체·복원 때였어요.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려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설레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흉터라든 발견했지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보니 바로 청동사리함이었어요. 1천3백년동안 고이 간직된 사리함이 내 손에 그것도 내가 제일 먼저 보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기쁨과 희열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성취감과 행복감이었어요."

김박사는 그 순간 신라인이 됐다. 불교와 멀어진 감은사지 서탑 해체·발굴



김정기 박사(67세). 국립박물관 학예관을 시작으로 문화재연구원, 연구

감은사 쌍탑 사리함 만지며 '삼국통일 희열 감지' "문화재 보존은 후손들의 긍지이자 사명입니다"

소장, 한림대 박물관장을 거쳐 현재 문화재위원이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 상임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김박사의 얼굴빛은 5월 햇살의 짙은 시간 그윽함이 아닌 40년 문화재와 함께 살아온 열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난 56년인가 '동경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본이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원으로 참여해 문화재발굴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일본 메이지대와 동경대 재학시절의 전공은 건축공학.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옛사찰 건물의 가람배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절터발굴조사연구가 필수적이었던 김박사는 문화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설명했다.

김박사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본격 발굴조사를 시작한 때는 1959년 청동사리함 발굴로 유명한 감은사지 서탑 발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각

에도 참여해 35년만에 또다시 감은사지에 서서 신라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양탑에서 똑같이 청동제 사리함 발굴을 모두 지켜본 이는 김박사가 유일하다. 감은사와 전생애의 무슨 지중의 인연이라도 있었을까.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에게 사소한 욕심이란 가담할은 일일 것이다. 돌아갈 집도, 세월이 흐르는 것도 모두 이 감은사에 묻고 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 땅의 숨소리뿐일 것이다. 거기엔 선조들의 웃음과 아픔이 있다. 문화재를 깨고 어루만지는 것은 역사를 다듬는 것이다. 그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은 자신이 정열을 바쳐온 이 땅의 두께만큼이나 깊이가 쌓여 있다.

김박사의 문화재에 대한 지론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한 번 발굴되면 발굴 당시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삼아 보다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의 의미는 단순한 형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숨결과 열을 되새기는 숭고한 일이

라는 것이다. 문화재란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그 숨결 그대로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이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답게 지켜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한다.

문화재 훼손은 國恥

"오래전 프랑스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1시간넘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들여봐도 생명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후 국립박물관에 있는 미륵반가상을 바라보니 온연중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너스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는 세계 5대 문화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인의식을 잃어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 무

한한 긍지를 느낍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듯,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듯 김박사의 입가에 화룡점정의 미소가 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김박사는 불끄러미 장황으로 시선을 돌린다. 조금전의 미소와는 달리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친다. "지금까지처럼 여력이 다할 때까지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간단했지만 이 한마디는 바로 김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고종이 건청궁(乾淸宮)을 경영할 때 지었다는 연꽃 한가운데 고요히 자리잡은 향원정(香源亭)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배경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흰색 여학생복의 한 무리 속에서 향원정 한 구석을 가로지르며 총총걸음으로 또다른 발굴지로 향하는 김박사의 뒷모습이 한결 수평을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산승의 모습처럼 단아하고 가련해 보인다.

현명우 기자

산수가 좋아야 공부 잘되는지요

문 지·수·화·풍 사대로 문친 이 육신 이 온전해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도시생활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하고 물·땅이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또 시멘트 건물 속에 갇혀 살고 있으니 현대인은 시대가 옛날같이 않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공부가 잘 되겠는지요? 산수 좋고 풍광이 좋은 장소라 하지 않을까요?
(최희순·인천 부평구 부평동)

답 일체 물질세계는 사대가 뭉쳐서 있고 사대가 뭉쳐 있으므로서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할만도 한다면 일체는 마음이 근본이고 우주도 인간 마음의 근본과 직결이 되어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공부를 마음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적 현상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에 공해가 걸리거든대사야 어떻게 공부한다고 하겠습니까? 물질현상도 프로 켈라 돌듯이 눈부시게 돌아가는데 이 걱정, 저 걱정 장애거리가 많다면 그 또한 어찌 참나할

다. 이런 또 무슨 업인가, 내게 업이 많아서 상대의 아픔이 내게 전해오는 것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조태호·강릉시 옥계면 산거리)

답 업이라니요? 업이 많다는 것도 실은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 공하여 고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에 타에서 상대성으로 오는 것까지도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맡겨놓고 쉬우면 쉬우는데로 맡겨놓아야 참으로 놓는 것이지요. 쉬운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어려워져 안된다 고 한다면 아직 놓지를 못한 것이 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제 소견에 따라서 죽겠느냐 살겠느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지켜볼 뿐입니다.

병든 남편과 동생을 돕고 싶은데

문 남편이 지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어쩌해야 가족이 모두 건강해지고 다시 활짝 웃는 삶을 꾸리게 될런지요?
(박애자·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박애자·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령스님에게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내에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이 없고 본 사이 없고 들은 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저런 것 꼬치꼬치 따지려하지 말고 닥치는대로 그냥 놓고 가세요. 무엇이 다가와도 잡지 않고 죽을일지언정 두렵지 않은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 불안입니다

문 이제 갓 스물을 넘은 대학생입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한 편이고 겁이 많아서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그 점이 늘 불만스러운데 제 자신을 조박하는 일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진중태·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답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소심한 것도 겁이 많은 것도 다 내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되 입력해 버리면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본래는 그게 다 공한 것입니다. 자기가 공했기에 생각이란 것도 공해버렸지요. 어릴 때는 무서워서 밤에 변소도 못갔지만 커서는 무섭지 않더라고 하듯이 그 무서움중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입력한 것이니 되놓는다면 없는 것이지요.

놀다보니 상대의 아픔이 전해와

문 스님께서 늘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한동안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상대의 아픔을 그대로 직감하게 되었는데 은근히 두려움이 앞섭니

내가 주인공을 믿고 맡기라는 말을 아 마 수천번도 더 했을 겁니다. 주인공이란 내 주인공 내 주인공이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라 우주의 근본 한마음의 부분부분이라고 말 해도 좋습니다. 다시말해 부분이자 전체요 전체와 부분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공 내 주인공이 따로따로일 수 없고 따라서 내 주인공에 맡긴 것이 그 주인공에 맡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를 형성시켜 주고 다니는 근본 마음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를 맡아가지고 다니는 그릇이 깨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일이지 틀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타력에 기대는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나 동생도 이 도리를 믿고 같이 한다면 마치 양쪽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더 밝아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전화 벨이 울리려면 통화중이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천차만별의 능력을 용도에 따라 꺼내 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은 때에따라 약사보살로 화해 돌보아 주기도 하고 관음보살로 화해 응해 주기도 합니다. 한마음 우주의 덕은 전체를 다 먹이므로 조금도 줄어들어 없어 되 않습니다. 누구라도 남들을 위해 한번 던져보시는 마음과 또 체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법공부가 참 공부자 몸받고 나왔을 때 한번 해볼 공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언제든 오십시오?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속뜸을 먼저 써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속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께서 바라밀속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속만을 엄선하여 속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속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속기통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속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속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써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드는 속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 3)속뜸은 속을 태울때 생기는 속뜸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속뜸에서는 속뜸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말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까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분씩 열자극을 동시에 들 수 있는 질이 큰 특장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열자극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 나 흉터자극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오래되고 속뜸을 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속뜸건강요법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저혈, 불임증, 심장, 자궁혈암,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속뜸기 내용
1)바라밀 속뜸을 들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와(강화약속 약 2개월분 포함)
2)속뜸 도구 인쇄 반영구적
3)속뜸기 한세트도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필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견지 3동 301번지
(한신빌딩 3동 301호)
•대한 불교 조계종 본교(한양 대학 소년)
•부설 불교 비파리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 경기도 용인군 보현동 승리리 30-1 (승리빌딩3층) 성지연구소
전화: (0335)34-9490, 39-1906
이전: (0342)706-3060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속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하세요!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튀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